

# 일본,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현황

강 혜 정\*

일본 여성농업인은 2005년 전체 농업 취업인구의 53.3%를 차지하며 일본 농업 및 농촌 지역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 담당 작목은 노지채소가 28.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벼농사 16.4%, 시설채소 15.9%, 과수류 11.5% 등의 순이다.

일본 여성농업인의 경제 및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있어 왔다. 2003년 6월 인정농업인제도 운영지침 개정으로 공동경영자인 부부가 공동명의로 인정농업인이 될 수 있게 되어 인정농업자 중 여성의 비율은 1998년 1.49%에서 2006년 2.44%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여성농업위원 비율도 1990년 0.15%에서 2005년 4.12%로 증가하였고, 여성 농협 조합원수도 동기간에 12.05%에서 16.10%로 증가하였다.

## 1. 여성농업인의 인적 특징

일본의 농업 취업인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이후 점차 감소하여 1990년 60.2%에서 2005년 53.3%로 낮아졌다. 그러나 여성농업인 비중은 여전히 전체 농업 취업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일본 농업 및 농촌 지역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kang@krei.re.kr 02-3299-4286

표 1 농업취업인구에 차지하는 여성농업인 비율의 추이

단위: 천 명, %

	1990	1995	2000	2004	2005
농업취업인구	5,653	4,140	3,891	3,622	3,353
여성농업인 (비율)	3,403 (60.2)	2,372 (57.3)	2,171 (55.8)	2,000 (55.2)	1,788 (53.3)

주 : (1) 농업취업인구는 만16세 이상의 세대원수(1995년 이후는 만15세 이상의 세대원)이며 자영업에 종사한자 혹은 자영업과 기타의 직업 모두에 종사한 자 중에서 농업을 주 직업으로 종사하는 자의 합계를 말한다.

(2) 1995년 이후는 판매농가의 수치임.

자료 : 농림수산성 「농림업센서스」, 「농업구조 동태조사」

30~60대 농업 취업인구의 약 60%를 여성농업인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40대와 50대 연령대에서는 여성이 59%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 농업 주종사자 비율 분포는 50대에서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고 40대와 60대에서도 여성이 50%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성별 연령별 농업취업인구 분포

단위: 명, %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합계
남성	62,495 (62.8)	59,554 (62.8)	50,499 (41.0)	97,549 (40.6)	194,583 (40.6)	383,730 (43.5)	715,988 (50.0)	1,564,398 (46.7)
여성	37,060 (37.2)	35,243 (37.2)	72,688 (59.0)	142,504 (59.4)	284,487 (59.4)	499,211 (56.5)	716,999 (50.0)	1,788,192 (53.3)

자료: 농림수산성 「2005년도 농림업센서스」

표 3 성별 연령별 농업 주종사자 수 분포

단위: 명, %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합계
남성	1,079 (82.6)	28,566 (79.4)	45,692 (62.4)	92,068 (50.7)	185,006 (48.4)	338,873 (50.4)	522,880 (58.4)	1,214,164 (54.2)
여성	227 (17.4)	7,415 (20.6)	27,484 (37.6)	89,348 (49.3)	197,183 (51.6)	333,049 (49.6)	371,802 (41.6)	1,026,508 (4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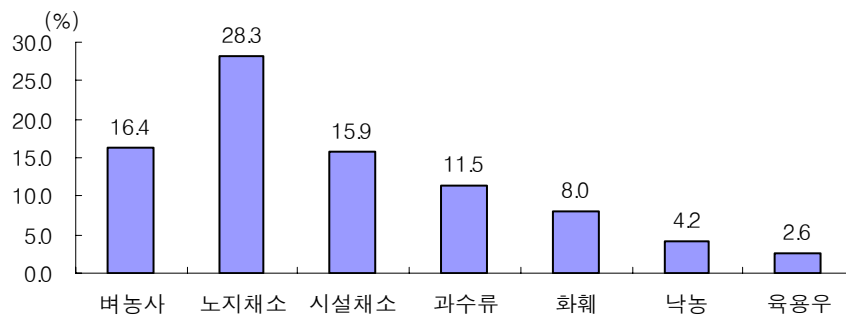
주 : 농업 주종사자는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원(농업취업인구)중에서 조사 날짜로부터 과거 1년간 주된 직업상태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를 말한다.

자료 : 농림수산성 「2005년도 농림업센서스」

## 2.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특징

1년 동안 농업에 60일 이상 종사한 여성이 있는 농가 중에서 여성농업인이 중요한 책임을 맡아 담당하고 있는 영농 분야가 있는 농가는 약 70.6%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농업경영에서 여성농업인의 노동비중은 매우 높은 편이다. 주요 담당 작목을 보면 노지채소가 28.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벼농사 16.4%, 시설채소 15.9%, 과수류 11.5% 등의 순이다.

그림 1 여성농업인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영농 분포(복수 응답)



자료 : 「농업구조 동태조사: 여성의 취업구조 및 경영참가현황조사」(2003년 7월)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 참여에 대한 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의 40%, 남성의 60%가 경영자 혹은 공동경영자로서 농업경영 전체 혹은 특정 부분의 경영을 도맡아 관리하고 싶다 (또는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일수록 이런 경향은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경영방침은 남편 혹은 부모 등이 결정하지만 나의 의견도 반영되면 한다’라는 응답도 50%를 차지하고 있어, 절반정도의 여성농업인들이 여전히 농업보조자로서의 소득적인 경영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표 4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 참여에 대한 의향

단위: %

농업경영 참여 의향	남성	여성
1.경영자로서 농업경영 전체를 도맡아 관리하고 싶다	7.2	5.3
2.공동경영자로서 농업경영전체를 도맡아 관리하고 싶다	28	14.8
3.공동경영자로서 특정부문의 경영을 도맡아 관리하고 싶다	25.4	17.1
4.경영방침은 남편 혹은 부모 등이 결정하지만 나의 의견도 반영했으면 한다	35.4	49.9
5.지시 받은 농작업에만 종사하는 것이 좋다	3.9	11.7
6 응답 없음	0.9	1.2

자료: 식료·농림수산업, 「농가의 남녀공동참가에 관한 의향조사」(2004년 12월)

농업 생산을 유지 발전시키고 효율적이면서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목표로 의욕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인정농업인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여성농업인도 당연히 인정농업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가족경영의 경우 2003년 6월 이전까지는 농업경영개선계획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경영을 주재하는 개인에게 한정되어 있었고, 부부, 부모와 자녀 등 복수의 사람이 공동으로 인정신청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가족경영에서 실질적으로 공동경영인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이나 농업후계자에 대해서도 공동경영인으로서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2003년 6월 인정농업인제도의 운용개선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공동경영자인 부부가 공동명의로 인정농업인이 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인정농업자 중 여성의 비율은 1998년 1.49%, 2004년 2.02%, 2006년 2.44%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부부 인정농업인 공동 신청에 필요한 요건은, ① 농업경영개선계획 인정신청을 하는 명의인이 모두 농지법상의 세대원일 것, ② 가족경영협약 등이 체결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해당 농업경영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이 해당 명의인 모두에게 귀속할 것, ③ 또한 농업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해당 명의인 모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명확할 것, ④ 해당 가족경영협약 등의 상호결정이 준수되고 있을 것 등이다.

표 5 여성 인정농업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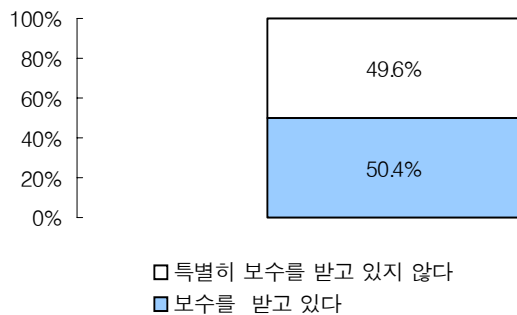
단위: 명,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실수	1,780	2,140	2,539	2,746	3,149	3,402	3,685	4,125	4,896
비율	1.49	1.57	1.75	1.83	1.93	1.98	2.02	2.15	2.44

주 : 2004년 이후의 인정농업자는 부부에 의한 공동신청을 포함함.  
 자료 : 농림수산성 경영정책과 조사 「농업경영개선계획의 영농 유형별 인정현황」

일본 여성농업인 설문조사 결과, 농업에 종사하면서 급여 혹은 보수를 받고 있는 여성농업인은 50.4%로, 과반수의 여성농업인은 보수를 받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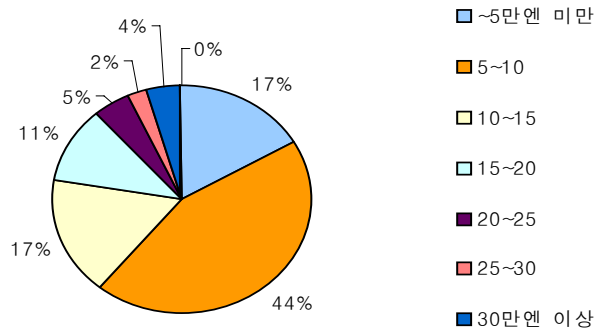
그림 2 보수 및 급여 등의 수취 현황



자료 : 「농업구조 동태조사-여성의 취업구조·경영참가현황조사-」 (2003년 7월)

또한 보수를 받고 있는 여성농업인은 한 달 평균 수취금액은 10만 엔 이하가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그 보수액도 적은 편이다. 5~10만 엔 보수를 수취하는 비율이 44%로 가장 높고, 30만 엔 이상은 4% 정도로 나타났다. 일본 여성농업인의 절반이 농가 내에서 일정 보수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지위가 우리나라 여성농업인들보다 높은 편이나, 여전히 수취 보수액은 적어 남편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림 3 여성농업인의 보수 수취금액 비율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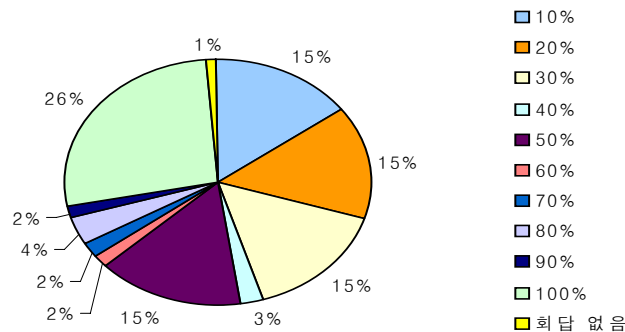


자료 : 「농업구조 동태조사-여성의 취업구조·경영참가현황조사-」 (2003년 7월)

여성농업인 본인이 받은 보수를 ‘전부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고 응답한 자는 27.2%이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비율이 50% 이하’라고 응답한 자는 62.8%이다. 즉, 보수를 받고 있어도 명목상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농업경영에 있어서 보수에 대한 여성농업인의 의향 조사 결과, 90% 이상이 보수를 받고 싶어 하며, 그 수취방법에 대해서는 약 60%의 여성농업인이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또는 농업수익에 따라 일정비율로 보수를 받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4 한 달 수취 보수액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금액 비율 분포



자료 : 「농업구조 동태조사-여성의 취업구조·경영참가현황조사-」 (2003년 7월)

표 6 보수 수취방법에 대한 여성농업자의 의향

단위: %

설문항목	응답 비율
정규적(월급, 사분기 마다 등)으로 일정금액을 받고 싶다	34.1
농업수익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보수를 받고 싶다	21.5
가족과의 협의를 통해서 돈이 필요할 때 보수를 받고 싶다	24.5
경영주 판단으로 보수를 받고 싶다	10.8
보수는 필요 없다	4.3
기타	1.5
응답 없음	3.2

자료 : 식료·농림수산업, 농산어촌에 있어서의 의향조사 「농가의 남녀공동참가에 관한 의향조사」 (2004년 12월)

### 3. 여성농업인의 사회활동 참여 현황

농업위원 혹은 농업협동조합 임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 추세이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1990년 여성농업위원 비율은 0.15%에서 2005년 4.12%로 증가하였고, 여성 농협 조합원수도 동기간에 12.05%에서 16.10%로 증가하였다.

농촌지역 여성의 사회 참여율이 낮은 원인으로 농촌사회의 전통적인 사고에 깔려있는 남성이 한 집안을 대표한다는 뿌리 깊은 의식과 가사노동·육아·노인 봉양 등의 여성농업인의 가중한 노동 부담 등을 들 수 있다.

여성농업인의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JA(전중<sup>1)</sup>)은 제24회 JA전국대회(2006년 10월 11일)에서 ‘청년·여성의 정조합원 가입촉진’, ‘여성의 JA이사 등 선출 (JA 조직 수 이상의 여성이사 선출이 목표)’ 등을 결의한 바 있다. 또한 전국농업회의소는 의욕적인 여성농업인 등의 선거의원 입후보 촉진, 선임의

1) JA는 Japan Agricultural Co-operatives 의 줄임말로 농업협동조합 중앙회(全國農業協同組合中央會 <http://www.zenchu-ja.or.jp/>)의 약칭임.

원으로써의 등용 촉진 (한 농업위원회 당 두 명이상의 여성농업위원 등용이 목표) 등을 추진하는 ‘신·농(農)위(委)조직 활동개혁 프로그램’을 도도부현 농업회의 회장회의(2004년 11월 11일)에서 결정한 바 있다.

표 7 여성농업인의 사회활동 참여 현황

단위: 명, %

	1990	1995	2000	2004	2005
농업위원수	62,524	60,917	59,254	56,348	45,379
여성농업위원	93 (0.15)	203 (0.33)	1,081 (1.82)	2,391 (4.24)	1,869 (4.12)
농협 정조합원수	5,537,547	5,432,260	5,240,785	5,045,472	4,997,797
여성조합원수	667,468 (12.05)	707,117 (13.02)	746,719 (14.25)	786,357 (15.59)	804,586 (16.10)
농협 임원수	68,611	50,735	32,003	23,742	22,799
여성 농협 임원수	70 (0.10)	102 (0.20)	187 (0.58)	364 (1.53)	438 (1.92)

주: 농업위원 수는 10월 1일 자료이고 농협자료는 각 사업 년도 말 (농협에 따라 4월 말~3월말) 자료임.

자료: 농협조합원수, 임원 수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성 「종합농협통계표」, 농업위원 수에 대해서는 경영국 구조개선과 조사 자료임.

참고자료

<http://www.maff.go.jp/danjo/>(일본농림수산성 경영국 보급여성과 홈페이지) 발췌정리